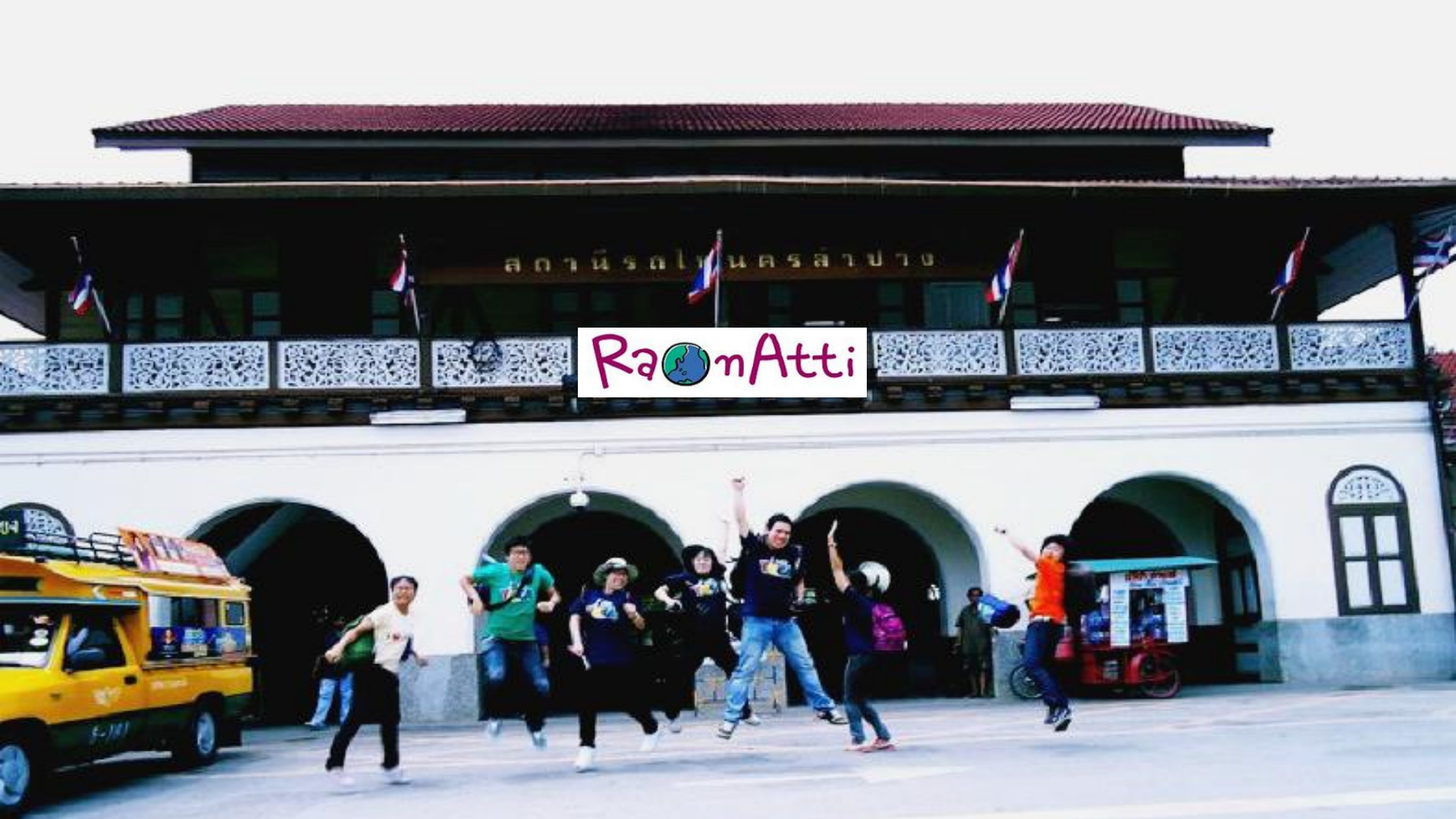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

산은아빠 4기 태극팀 최종보고



조준희 / 박소영 / 권윤경 / 김우겸 / 김현주



5개 월 - 태극 - 우리들의 이야기

캠프

왓메하헨 스쿨

송편 만들기

한국 방 꾸미기

유기농 농촌 체험학습

데이 캠프

헬스케어

환경 캠페인




홈스테이
수업

치앙다오
크리스마스

고산족 캠프
JKY 캠프

여행





태국에서 153박 154일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싼캄팡 YMCA
대학생친구들
아이들
고산족
마을사람들
동거동락 우리들

라온아띠 5기 태국팀에게

싼캄팡 YMCA

‘최종베이스캠프’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다.

싼캄팡 YMCA 건물은 우리에게 사무실이 아닌 **집**이었다.



Y 식구들

9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첫 미팅
우리를 위해 짜여진 5개월의 스케줄 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의 연속

라온아띠가
조금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길 바라는 태국 Y 식구들.
* 최고의 스텝과 함께 한 우리는 행운이다.



태국에 있는 동안 정말 잘~먹고,
살 포동포동하게 찌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먹고, 더 먹으라는 말을 5개월 동안 들었다.

매일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먹었다.
(지치고 힘든 모습이 보이면 '삼계탕' 도 끓여주시고,
'고추장불고기'도 해주시고)

덕분에 지금,
라온아띠 4기 태국팀은 . . .

+ 싹캠핑 동네 친구들

낯선 외국인 5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은
동네 '수다' 친구 가 되었다.





대학생친구들

5개월동안 람팡영어캠프 / 람팡영어워크샵 / 메조대학 관광학과 수업 / 치앙다오 도네이션 행사 등 공식적인 일정을 포함해서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어울렸던 '또래친구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첫 일정
람팡 라샤밭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한 2박3일캠프

그때부터 대학생 친구들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포레 친구들과 어울리며

태국 문화/언어/생활에 좀더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Volunteer Mind 를 배울 수 있었고,
'아시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태국에 놀러 가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태국팀의 매력 아닐까?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왓메하헨 / 싼캄팡 YMCA Day camp / 지라티왓 / 람팡 / 싼캄팡고등학교 / 람퐁JKY



우리는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한국어-체육-한지공예-탱탱볼만들기-태권도-아리랑-미술



분리수거교육 - 청소 (Big cleaning day) - 비닐봉투사용 줄이기

청소도 하고



한국문화도 공유하고

추석-송편-한복-골든벨 퀴즈



투호-눈 만들기-카드쓰기

크리스마스도 함께하고





그냥, 놀기도 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가 5개월 동안 한 일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 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태국어를 잘 못하는 동네 언니, 오빠, 형, 누나, 친구였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태국어 개인과외 선생님이자 기쁨조였다.



태국의 학교 교육은
교실에 앉아서 대부분의 수업을 듣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랐다.



태국에서 만난 아이들은
손재주도 좋고,
배구도 잘하고,
전통 춤도 잘 추고,
전통 악기도 잘 다뤘다.

우리는 태국에 와서야
한국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고산족 사람들



2011년 1월 12일 ~ 1월 16일, 우리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 '나몬스쿨'을 찾았다.

위양행 고산족 마을

나몬스쿨

리서/카렌/타이야이/무서 4개의 소수민족 학생 221명이 공부하고있다.
이중 100여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제기 만들기-탱탱볼 만들기-한복+태권도복 체험하기-한국어수업-낚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몰랐던 태국

작은 공동체

다문화 학교의 딜레마



마을사람들

싼사이 마을에는 우리가 엄마,아빠,오빠,형,동생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의 태국 '가족' 이다.





2달여의 홈스테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다.

-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김현주)
- 모두들 한식구로 느껴질 만큼 이 마을 사람들과 많은 정을 나누었다. (김우겸)
-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웃사람들 덕분에 마치 대가족에 살다 온 느낌이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 했던 작은 마을을 경험하고 온 셈이다. (조준희)
- 태국 가족과 살면서 한국 가족이 생각났듯이, 지금은 한국 가족과 살면서 태국 가족이 생각난다. (권윤경)
- 보고 싶고 그리운, 싹싹이 마을식구들. 언젠가 다시 돌아갈 태국 집이 있어 참 행복하다. (박소영)

동거동락

우리 다섯 명

김현주
권윤경
조준희
김우겸
박소영





우리팀은

리더가 없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
사실 고만 고만 하다.
쿵~짝이 잘 맞는다.
현지인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피드백에 강하다.

모자란 잠을 반납해가며 대화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



라운아띠 태국팀 5기 에게
인수인계 사항 ? !

라운아띠 5기 태국팀

특별한 인수인계 사항은 없습니다.

남자한복
여자한복

퍼포먼스
고추장/라면/김

활짝 열린 마음

+ 모기장/부루마블

잘 다녀오세요.

라운아띠 4기 태국팀
5개월 이야기

끝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